

# 새로 판을 짜는 시대에 우리가 설 땅을 확보하자

사료값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평균 11.6% 인상은 양축농가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74년 제1차 석유파동과 80년 제2차 석유파동 때 사료값이 인상되긴 했지만, 이번처럼 충격이 큰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자금이 있어 버티면 축산물 값도 따라서 상승되므로 국내에서 우리끼리 경쟁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료값 인상은 의미가 다르다. 이미 일부 축산물이 개방된 상태이고,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축산물이 수입개방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비 상승 요인이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료곡물 등 원료값이 오르면 우리의 경쟁 상대국도 오르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옥수수 주생산지인 미국과의 경쟁일 경우 옥수수의 내륙 운송비나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 우리가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진다. 또다른 경쟁국인 덴마크의 경우 원료사료를 대부분 자급하기 때문에 사료값의 인상은 우리에게 크게 불리하다.

아직은 완전개방 이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까지는 없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지구촌 곳곳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정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예를 들면, 국제사료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 데도 국내 사료값에 반영이 안될 경우 사료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이웃인 일본이나 대만으로 국내에서 값싸게 생산된 축산물이 이

이번 15대 첫 정기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일 등이 모두 이루어져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돼지 주요 질병의 박멸 계획이나 축산물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등 정부와 양축농가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양돈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동될 것이며, 차액은 사료회사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의 현상도 예측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무리한 수출은 외화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화 시대에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 밖에 없고, 생산에서 가공·처리·유통이 하나로 통합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또는 어느 한 분야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는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되었다. 국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축산물 가격이 안정, 유지되어야 축산농가도 생업을 영위하고,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가를 항상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모든 생산요소들이(사료값 등) 안정될 때는 그런대로 쉽겠지만, 지금처럼 변동이 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전문가도 육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장에 잘못 개입하면 큰 위험도 따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수입기준가격을 정하고 차액은 관세로 흡수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내 가격을 안정시켜 온 것을 우리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사료곡물 가격이 폭등할 때는 쓸모없는 제도로 만들어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브로일러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축산발전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광우병 파동은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료곡물의 소비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물 무역에 큰 변화가 올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개편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

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밑으로부터의 개혁 의지가 합치될 때에만 성공하였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변화와 개혁의 불가피성을 모든 축산농가가 인식하도록 끊임없는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료값의 대폭적인 인상과 저금리 시대로의 진행, 그리고 멀지 않은 앞날에 닥쳐올 것으로 보이는 환율의 변화, 가공식품의 소비와 무역 증대,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등 짧은 시기에 급속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

이번 15대 첫 정기국회에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일 등이 모두 이루어져 변화하는 시대의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돼지 주요 질병의 박멸 계획이나 축산물의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등 정부와 양축농가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양돈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차대전후 지금까지 많은 중진국들이 한 나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별개로 있었지만, 합해서 추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돼지콜레라와 돼지오제스키병 박멸 추진사업의 성패도 예산을 확보하는 일 외에 정부의 의지와 양축농가의 필요성이 합하여 함께 추진될 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